

2020 국별 진출전략

스리랑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새 정권과 함께 변화하는 사업 기회	4
나. 재정 정책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재점검	4
다. 브렉시트를 대비한 수출 시장 다각화	4
라. 계속되는 도시화 트렌드와 건설 산업 성장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7
라. 정책·규제 환경	7
2. 시장 분석	9
가. 시장 특성	9
나. 교역	10
다. 투자	10
라. 프로젝트	1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2
가. 교역	12
나. 투자	14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4
III. 진출전략	16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17
3. 한-스리랑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18
4. 진출 시 유의사항	20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21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22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3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24
부 록	
對스리랑카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25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19년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낮아진 경제성장률의 회복세 전망

- 2019년 4월에 있었던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사건으로 정치·경제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고, 관광수입에 심한 타격, 2020년부터 회복

* 2019년도 실질 GDP 성장률 2.7% 수준 전망, IMF 대출 2020년 6월까지 계속될 예정

* 2020년 IMF 예상 실질 성장률은 3.5%, 인플레이션 4.5%

민생경제 중심의 수요 증가

- 2019년 11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 직결분야 위주로 정부지원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민생 경기 활성화가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치	2020년 전망치
인구	백만 명	20.4	20.7	20.9	21.2	21.4	21.6	21.8	22.5
명목 GDP	십억 달러	68.4	79.4	80.6	82.4	88.0	88.9	91.3	94.4
1인당 명목GDP	달러	3,351	3,819	3,842	3,886	4,104	4,102	4,208	4,325
실질성장률	%	9.1	4.3	4.0	4.1	3.4	3.2	2.7	3.5
실업률	%	4.0	4.3	4.7	4.4	4.2	4.6	4.9	5
소비자물가상승률	%	7.6	3.2	3.8	4.0	7.1	2.8	3.5	4.0
재정수지(GDP대비)	%	(6.5)	(5.7)	(7.6)	(5.4)	(5.5)	(5.3)	(5.4)	(5.2)
총수출	백만 달러	9,774	11,130	10,546	10,310	11,360	11,890	12,603	13,485
(對韓 수출)	"	41	73	64	69	63	64	67	72
총수입	"	19,190	19,417	18,935	19,183	20,980	22,233	23,344	24,745
(對韓 수입)	"	287	414	308	339	337	309	327	346
무역수지	백만 달러	-9,417	-8,287	-8,388	-8,873	-9,619	-10,343	-10,653	-11,079
경상수지	"	-3,982	-2,018	-1,883	-1,942	-2,309	-2,814	-2,870	-2,944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0.75	131.04	144.06	149.80	152.85	182.74	195	21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0.8	0.75	0.73	0.82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46	8.94	6.80	8.97	13.73	16.11	18.8	22.0

자료 : 현지 통계청, 재무부 발간자료(2019년 10월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11월 16일 새 대통령 선거와 2020년 중반에 있을 의회선거로 정치적 유동성 증가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계속되는 도시화 트렌드로 건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서비스업 및 관광 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 성장도 기대됨

가. 새 정권과 함께 변화하는 사업 기회

- 2019년 11월 16일 새 대통령 선거와 2020년 중반에 있을 의회선거로 정치적 유동성 증가
- 경제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 자금 관련 프로젝트 및 민간사업 기회에 있어서 변수 예상되므로 시장 발굴에 있어 우리기업의 정확한 정보 입수 필요
- 정치 환경의 혼란 속에서도 스리랑카 경제인 단체*는 국가 안보·안정 및 경제 부흥을 위해 다양한 안전을 정부에 건의하며 스리랑카 경제가 2025년까지 높은 성장률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Sri Lanka Chamber of Commerce

나. 재정 정책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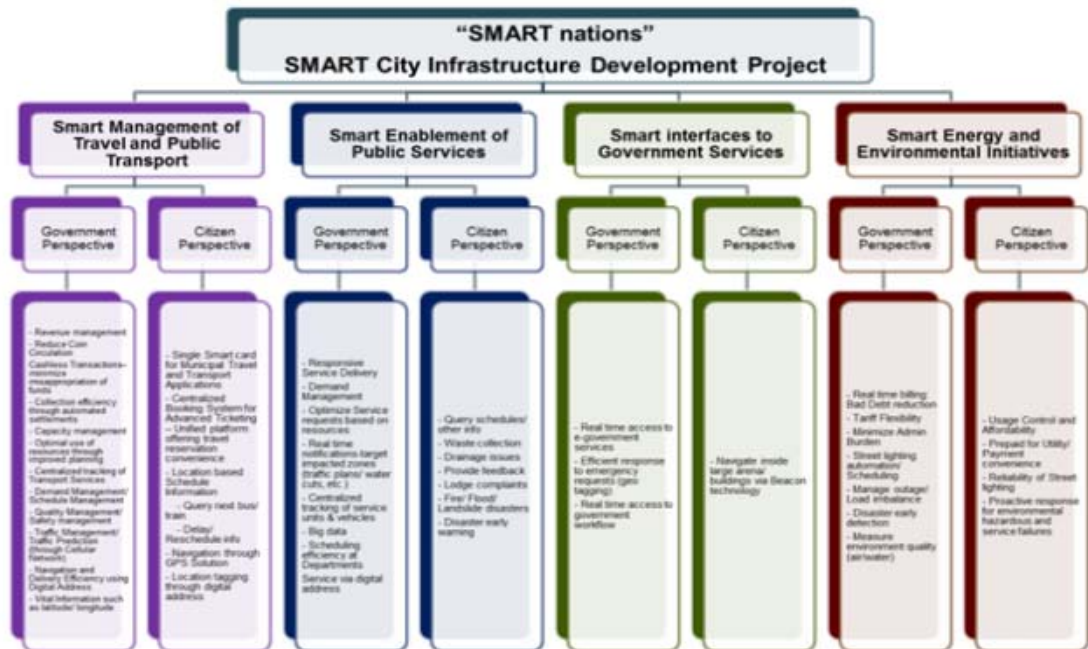
- 국가 신용 악화의 원인인 높은 정부 부채와 이자 상황이 공공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루피화 평가 절하를 더 취약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가 됨
- 2019년 GDP의 5.4%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2020/2021년에는 5%로 낮추려는 정부 의지, 건설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
 - 관광 분야는 약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 재정 및 구조적 개혁이 필수
 -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혁신과 전기공급 관리비 비효율성 및 보조금 개선 역시 재정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

다. 브렉시트를 대비한 수출 시장 다각화

- EU GSP+ 혜택과 함께 의류와 고무 제품의 경우 전체의 80%를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한 경우 영국이 EU GSP+ 혜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영국 수출에 있어 높아진 관세를 지불하게 됨
- 영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감소 예상에 따른 수출 시장 다각화 전략 구상

라. 계속되는 도시화 트렌드와 건설 산업 성장

- 스리랑카의 도시화 진행률은 9.5%이며,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가 약 50% 차지
 - 스리랑카의 Ministry of Megapolis and Western Development는 이미 도시화를 넘어 Tech City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음



자료 : Ministry of Megapolis and Western Development

- 현재 200여 개의 신규 콘도미니엄 건설 프로젝트가 실행 예정에 있음
-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9%를 차지하며, 내년도 예상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현실화 된다면 2년 안으로 전체의 15%까지 차지할 것이라 전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가. 정치 환경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주도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수출 중점 및 유망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고 수출이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선순환의 경제 구조 정립 노력
- 이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개발청(EDB) 기능 강화 및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2019년 11월 16일 선거 후 정책 변동 가능성

- 스리랑카 시장 구조 특성상 아직은 인프라 개발 등 B2G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만약 현재 집권당(New Democratic Front)에서 당이 변경*된다면 집권 초기 시점에는 정책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기회 발굴에 더욱 신중

* 31개 당에서 31명이 출마(1당 1후보만 가능)한 상황으로 정권교체 가능성 존재

대통령 출마 주요 당의 정책 방향 및 공약 관련 사항

당명	주요 정책 방향
New Democratic Front	현재 집권당, 공립학교 무상급식, 보안, 화합 강화, 마약근절
Sri Lanka Podujana Peramuna	보안강화, 부패척결, VAT 세율인하(현재 15%에서 8%로)
National People's Power	정치개혁, 보다는은 문화 정착
National People's Party	보안강화 부패척결

안전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

- 전체 163개국 중 스리랑카의 Global Peace Ranking은 2019년 72위이며, 2008년 120위에서 점진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음

* 4월 테러가 발생하기 전 순위는 67위

나. 경제 환경

부활절 테러 여파로 하락한 성장률

-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3.7%로 원만하였으나, 4월 테러 이후 2분기 성장률은 1.6%로 급감했고, 이는 내전 이후로 2번째로 낮은 수치임
- 2019년 10월 14일 자 기준, 스리랑카 루피·달러 환율은 182.73루피로 4월 테러 전에 비해 1.1% 상승한 수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

-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EODB) Index 순위에서 2020년 까지 베트남과 동일한 수치인 70위로 향상 시키고자 함 (현재 100위)
- *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통해 24시간 내로 기업등록(이전 통상 14일)

다. 산업 환경

특정지역 산업 집중도

- 2018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 29%, 제조업 26%, 서비스업 45%로서, 전년 대비 농업은 3%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 감소
- 상업도시인 콜롬보와 인근지역인 감파하에 대기업 20%, 중소기업 41%가 있어 이들 지역이 현지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남부 주 Galle, Matara, 중부 주 Kandy, Nuwara Eliya에 제조업이 발달
- * 이들 지역에 SOC, 인력,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업이 집중됨

최근 동향

- 의류, 섬유, 가죽, 가구, 종이관련 제품 제조업 및 전기·가스·에어컨디션 공급·물·상하수도·건설 분야 성장, 확장세
- 2019년도 부활절 테러로 숙박업, 식음료 서비스 및 운송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2020년에는 정상 궤도를 되찾을 것으로 보임

라. 정책·규제 환경

다양한 양자·다자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노력

- 현재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와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인도와는 경제·기술 협력 협정도 맺음

- 태국, 방글라데시는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 중에 있고,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과는 아직까지 FTA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중
- 다자 무역협정 체결 현황
 -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 2006.1.1 발효
 -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 아태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2006.9.1 발효
 -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

수입자유화 정책

-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 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
 - 1994년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
 -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입법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음
 - 처음에는 스리랑카의 수입 장벽이 복잡해보일 수는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간소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시장 분석

※ 스리랑카는 글로벌 화물운송의 핵심 관문인 인도양의 허브로서, 꾸준한 경제 성장세 지속 예상되며, 브랜드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중산층이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고품질로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의 국제기금 원조 및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도양 관문으로서 해산물류의 허브

- 세계 석유의 70%,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이 지나가는 인도양의 관문에 소재하므로 오히려 스리랑카에서 인도로의 물류적 접근이 효율적
-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으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항구로서 대거 투자를 하고 있고, 스리랑카도 아시아 물류허브로 성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전망

- 1인당 GDP가 4천 달러가 넘는 선진 개도국으로써, 만약 연간 인구 성장률 0.5%, 인플레이션 5%, 루피 평가절하율 3%, 실질 경제 성장률 6%가 계속될 것을 가정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9년까지 8,000달러로, 2034년까지 12,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에이전트 역할이 강조되는 시장

- 아직은 높은 관세와 익숙하지 않은 상관습,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품은 에이전트를 활용도가 높아 이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중산 소비층의 증가

- 소득수준에 비해 자동차와 핸드폰 등 '보여 지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 증시

*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편으로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품질을 중요시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

나. 교역

수출 동향

- 2018년 기준 수출은 116억 5,8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
* 수출액 : (2016) 102억 1천만 달러 → (2017) 114억 6,300만 달러
-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26.40%), 영국(8.42%), 인도(6.58%), 독일(5.25%), 이탈리아(4.95%), 중국(1.98%), 벨기에(3.08%) 등임
* 한국은 수출순위 31위로서 전체의 0.55%
-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42.54%), 커피·차·향신료(15.04%) 등

수입 동향

- 2018년 기준 수입은 221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7% 증가
* 수입액 : (2016) 194억 9천만 달러 → (2017) 213억 3,600만 달러
- 주요 수입 국가는 인도(18.80%), 중국(18.59%), 아랍에미리트공화국(7.72%), 싱가포르(6.07%), 일본(7.21%), 미국(3.17%) 등
* 한국은 수입순위 17위로서 전체의 1.4%
-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연료(17.05%), 차량(10.07%), 기계류(7.29%) 등

다. 투자

투자 동향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인 2017년의 13.73억 달러에 비해 17.3% 증가한 16.11억 달러에 달했는데, 주요 투자국은 중국(8.7억 달러), 인도(1.7억 달러), 싱가포르(1.4억 달러) 등임
- 주요 분야는 사회기반시설(60%), 제조, 통신 분야임

투자 여건

- 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운 반면,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적 노동법, 열악한 부품 산업기반, 시장협소, 높은 관세 등은 걸림돌
- 각종 투자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외환관리 완화, 공장부지 안정적 확보, 비자발급 편의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제도 개편도 추진

라. 프로젝트

공공인프라 지속 확장

- 계층, 지역 간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예산 제약 하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
- 최근에도 고속도로, 도시주택, 관개설비, 항구, 공항, 전력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특히, 통신과 물류기반이 민간기업 참가로 더욱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갔고, 콜롬보를 서남아 최대의 글로벌 도시로 개발시키는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도 진척 중(중국)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국제적 원조를 받아 진행

- IMF,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로부터 상당액의 자금을 조달받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Asian Development Bank는 스리랑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근 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

프로젝트는 건설 기자재 수입니즈와 직결

- 대표적으로 Colombo Port City 및 Hambantota Port Industrial Zone이 있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수출 동향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계(11.5%), 플라스틱(11.4%), 합성고무(9.2%), 철강 (8.2%), 편직물(7.8%), 광물성 원료(7.5%)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최근 대(對)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

HS CODE	품목명	단위: 천 달러			비중(%)			전년 대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8/2017 (%)
	총계	338641	336955	309291	100	100	100	-8.21
84	원자로, 보일러 관련 기계	38078	47573	35685	11.24	14.12	11.54	-24.99
39	플라스틱	19357	21702	35394	5.72	6.44	11.44	63.09
40	고무	27306	26208	28505	8.06	7.78	9.22	8.76
72	철강	25320	21317	25372	7.48	6.33	8.2	19.02
60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32250	22802	24209	9.52	6.77	7.83	6.17
27	광물성 원료	13827	18515	23356	4.08	5.49	7.55	26.15
55	인조섬유	23358	21075	19998	6.9	6.25	6.47	-5.11
29	유기화학품	8509	17579	14381	2.51	5.22	4.65	-18.19
54	인조필라멘트(실)	9477	12027	11926	2.8	3.57	3.86	-0.84
85	전기 기기	15436	41378	11509	4.56	12.28	3.72	-72.19
76	알루미늄	10177	1305	10532	3.01	0.39	3.41	707.19
48	종이류	16539	6453	10382	4.88	1.92	3.36	60.89
52	면	14248	7224	8377	4.21	2.14	2.71	15.96
73	철강류	3747	8381	7800	1.11	2.49	2.52	-6.93
58	특수직물, 레이스	26397	5559	5301	7.79	1.65	1.71	-4.66

자료 : 스리랑카 관세청

수입 동향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의류(52.3%), 고무(11.3%), 기타 화학물질(7.2%) 등
- 스리랑카는 우리에게 원부자재를, 우리는 스리랑카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보완적 관계

우리나라의 최근 대(對)스리랑카 주요 수입품목

HS CODE	품목명	단위: 천 달러			비중(%)			전년 대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8/2017 (%)
	총계	68765	62682	64232	100	100	100	2.47
62	의류와 그 부속품	18504	14891	16918	26.91	23.76	26.34	13.61
53	식물성 방직용 섬유	10653	10667	9053	15.49	17.02	14.09	-15.14
61	의류와 그 부속품	10002	9868	7592	14.54	15.74	11.82	-23.07
40	고무	7751	7043	7165	11.27	11.24	11.15	1.73
38	화학공업 생산품	3164	3906	4617	4.6	6.23	7.19	18.21
65	모자류	389	823	2072	0.57	1.31	3.23	151.65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시멘트	1486	1361	1667	2.16	2.17	2.59	22.41
09	커피, 차, 향신료	980	1528	1574	1.43	2.44	2.45	3.03
94	가구, 램프	1703	960	1485	2.48	1.53	2.31	54.66
56	워딩, 펄프, 부직포, 특수사	1031	1171	1432	1.5	1.87	2.23	22.36
95	완구, 게임용구의 부속품	1609	1236	1270	2.34	1.97	1.98	2.77
44	목재	585	1228	874	0.85	1.96	1.36	-28.79
03	어류, 갑각류, 연체류	492	571	812	0.71	0.91	1.26	42.17
27	광물성연료	0	135	760	0	0.21	1.18	464.29
21	각종 조제 식료품	197	168	759	0.29	0.27	1.18	350.88

자료 : 스리랑카 관세청

2019년 우리의 대(對)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스리랑카는 지난 7월 기준 우리의 수출 순위 83위로서,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 수입액은 6,16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 수출은 지난 2~3월 감소 추세에서 4월 들어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는데, 5월 들어 다시 감소, 7월까지 감소세 지속(△8.3%)
 - 4월은 5월에 있는 스리랑카 최대 명절(5월 보름)을 대비한 특수가 있는 시기
 - 4월 테러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교역도 지속 감소

우리의 대(對)스리랑카 수출 동향(2019년 1~7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수출액(백만불)	28	15	19	22	17	16	23	140
증감율(%)	13.4	△20.7	△2.4	22.5	△27.5	△40.1	△8.3	△1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우리기업 투자진출 현황

- 투자유치청(BOI)에 따르면, 우리의 현지투자 건수는 약 60여 건에 달하지만, 생산시설이나 법인 설립 등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약 20여 건에 불과
 - 낮은 임금, 높은 교육수준, 인도양 물류유통 이점 등으로 '90년대~'0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의류 분야 중심으로 우리의 해외투자 선호지역
 - * '00년대 들어 중국, 베트남 등이 임가공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의류 분야 주요 수출국이 수입 쿼터를 적용하면서 우리의 현지투자 감소
- 건설 및 의류 산업 위주 진출
 - '09년 약 30여 년에 걸친 내전이 종식,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진출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음

사업체명	분야	주요 활동사항
현대건설	항만, 건축	콜롬보 항만 방파제 공사(5억 달러) Waterfront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5억 달러)
코오롱글로벌	수 처리 시설	수 처리 공사(취수, 정수, 배수, 관거)
경남기업	도로, 아파트	도로 공사(Hatton-Nuwara Eliya 등 5개 지역) 아파트 공사
대보건설	병원, 전시장	ODA 발주사업 전문

- OEM 제조 지역으로서 전통적 비교우위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남아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최근 가중되는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현지투자 감소
 - * 서남아는 동남아에 비해 물류 운송시간이 더 걸리고 문화적 거리감도 여전히 상존
- 주요 투자기업은 카니발월드(고무풍선, 장갑), 구룽랑카(의류원부자재), 스카이라인(야구공), 피스랑카(의류), 영안랑카(모자), 구상랑카(장갑) 등

KOICA, EXIM 등을 통한 유·무상 원조 연계형 투자

- 병원기자재 섹터차관 사업, 데두루오야 상수도 사업, 콜롬보 철도현대화 사업, 다목적 어항개발 사업 등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경제협력

-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양측 간 긴밀한 협력 기대
- 스리랑카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메가폴리스 개발 프로젝트(Megapolis Development Project)

- 스리랑카 서부주 지역에 주거, 교통, 수자원관리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 2016~3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행(총 400억 불 투입 예상)
- 스리랑카 측은 주택건설, 폐기물처리, 교통허브 계획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희망

고용협력

-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3만 명 내외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한국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스리랑카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에도 큰 역할 중
-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국가별 도입 쿼터는 매년 사업체부터의 인력 수요 및 선호도, 귀국률 및 불법 체류율 등을 종합하여 결정됨
 - 이에 따라 경제여건 개선 및 근로자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근로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할 필요

개발협력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Priority Partner Country)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수자원, 교육, 의료, 공공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중점
 - * KOICA 사업으로 지어진 함반토타 국제회의장(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은 2013년 영연방회의의 시 사용되었으며, 북부지역 학교 건립 사업은 스리랑카 내전 후 소외된 북부지역 재건에 기여
- 우리나라는 ODA 선진화의 일환으로 유·무상통합 제2차 국별전략(2017-20)에 따라,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위생, △지역발전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 필요

문화협력

-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 확대

Ⅲ. 진출전략

※ 수출 관련된 제조 분야, 개발 프로젝트, 수입유통 분야, 교육, 의료 등의 분야와 함께 정부조달 시장진출도 유망하며, 유희설비 및 중고제품(부품)의 틈새 분야 진출 기회가 있음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스리랑카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신(新)정부 경제개발 정책에 맞는 진출분야 선택 및 공략	에너지 분야 등 신흥시장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사회주의적 특성을 활용한 정부조달 시장 타깃 및 진출	의료기기 등 조달시장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정부 및 민간의 개발 프로젝트 등을 타깃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시도	주요 수입품목 현지진출 지원
WT 전략 (위협 대응)	• 현지 소득수준을 고려, 유희설비 및 중고제품(부품)의 틈새 분야 진출	유희물품 틈새시장 공략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선박부품 인도양 진출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수요확대,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 현지 조립을 통해 재수출하는 현지 특성
 - * 사업 분야 : 보트(소형·중형) 산업 * 접근방향 :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우리기업들의 참가 유도 * 타깃 수요 : 신규제작(부품) + 보수유지(부품·A/S서비스)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양 관문인 섬나라 특성상 보트(소·중형) 수요 계속 확대, 현지 제조기반 부족으로 부품 대다수를 수입, 현지 조립을 통해 재수출하는 현지 특성 활용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조립생산이 가능한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KOTRA사업**과 (정시) 사이버 미팅(수시)으로 상시 비즈니스 개발 협력
 - * 민간 최대 선박 제조·보수업체 등
 - ** 경기국제보트쇼(3월), 부산국제보트쇼(5월), Global Offshore & Marine Plaza(10월) 등

2-2. 태양광 인도양 진출확대 사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불안정한 현지 에너지 공급 여건으로, 태양광 등 자체 전력생산 방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 특히, 환경친화적 전략 생산방안에 대한 선호 증가
 - * 접근방향 : 프로젝트를 선별 타깃, B2B, B2C, B2G로 맞춤형 접근
 - * 타깃수요 : 기 승인 프로젝트(수출) + 신규 프로젝트(기획/투자유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리랑카·몰디브는 적도에 인접, 일 년 내내 태양에너지가 풍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음
 - * 스리랑카는 향후 10년 내 전국으로 100만 개 이상의 지붕형 태양광 플랜트 개발계획을 집중 추진 중이고, 몰디브는 제한된 면적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수요가 매우 높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략) 인도 등 서남아 기 진출업체들을 파일럿 선도업체로 선정, 지원
- (유망분야) 태양광 부품·기자재(수출) + 프로젝트(투자유치)

3 한-스리랑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ODA 프로젝트 연계 건설 기자재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리랑카는 ODA 수여국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WB와 같은 국제개발은행 펀드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건설이 부흥
 - * (중국) 콜롬보 PORT 시티, (우리나라)도로, 주상복합 단지 등 진행 중
- 이와 연계한 건설, 기자재 현지 진출이 유망
 - * 최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 건축시장으로의 진출기반 마련
 - * 정부 프로젝트 분석에 따른 우리 업체에 맞는 유효 수요를 타깃함으로써 가시적 수출 직결 사업으로 발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매년 5%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현지 제조기반이 취약, 상당수의 건설 기자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유망기자재 현지 진출의 적기(건축기자재 수입 비중 24%)
- 한편, 프로젝트는 ODA 등을 활용해서 진행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정부 주요 건설 프로젝트 분석 및 타깃 바이어 발굴
 - (프로젝트) 2020년도 정부예산안, 주요 국제개발은행 및 주요국 ODA 계획을 기본자료로 활용, 주요 프로젝트 타깃팅
 - * 관개시설 보수공사, 항만 신규 및 보수공사, 고속도로 신규 및 보수공사 등
 - (바이어) 주요 프로젝트별로 수주가 유망한 현지 바이어를 타깃하여 대(對)한국 구매가능 인콰이어리 분석
 - (국내업체) 구매가능 인콰이어리별로 공급가능 우리기업 발굴
 - *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지사화 사업(서남아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발굴
 - (상호매칭) 현지로드쇼, 지사화 사업 등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

수출 성공 사례

- 무역관은 현지 대표적인 선박제조업체 C사로부터 한국선박엔진 공급업체 발굴을 의뢰받았고, 무역관은 바이어 인콰이어리가 곧바로 수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적절한 우리기업을 수배

- 타 국가에 이미 수출경험이 있는 강소기업 H사를 발굴, 바이어에 소개할 수 있었는데,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양자 간 사이버 미팅 제안
- 사이버 미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의사결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됨
- 미팅 이후에도 교신에 문제가 생기면 바이어는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역관은 중간에서 양자 간 비즈니스 교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최종적으로 첫 수출에 1억 원 수출

스리랑카 수출에 있어서 한국기업이 염두에 뒀야 할 점

- 스리랑카는 인근 유사지역에 비해 현지인 교육수준이 높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반면, 자존심도 비교적 높은 편
 - 매년 수많은 스리랑카인이 교육 및 노동으로 영국, 호주, 한국, 미국, 두바이 등 선진국을 다년간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이는 스리랑카인들의 제품에 대한 안목을 높임
 - 스리랑카가 1인당 연간 GDP 4,000불인 개도국이라고 해서 품질이 좋지 않아도 값싸면 살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한 오관임
 - 값은 싸면서도 결국 품질 면에서도 바이어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수출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제품의 브랜드, 회사의 인지도도 바이어가 꼼꼼하게 따져봄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현지 관행 - 에이전트 지정
■ (현황) 스리랑카 정부 기관들은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및 돌연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대량구매로 많은 현지 기업들이 에이전트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외국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취소해 버리면 현지 기업은 외국 기업에 대금 지불을 할 수 없게 됨 ■ (대응전략) ☞ 현지 에이전트가 주로 정부에 납품하여 얻는 매출이 많을 경우, 우리기업은 LC로 거래하기 바람 ☞ 에이전트의 재무 상태와 지불 능력을 꼭 확인하기 바람	■ (현황) 특정 제품들(화장품, 의약품, 의료 장비, 비료, 농약)은 반드시 현지 기업이 제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 -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음 ■ (대응전략) ☞ 의약품의 경우 에이전트를 한번 지정하면 에이전트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기간 전에 에이전트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 시 첫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을 1~2년 정도로 짧게 잡고, 현지 에이전트의 계약 위반이나 특정 상황 발생 시 에이전트를 갑자기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를 바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6004	수입관세율(%)	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수입액('18/백만 달러)	220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5.3
	선정사유	2016년부터 꾸준한 수입 증가		
	시장동향	의류 산업은 스리랑카 최대 수출 분야이며,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국가에 수출		
	경쟁동향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30%), 인도(20~25%), 이탈리아(20%), 홍콩(15%)		
	진출방안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의 스리랑카 생산기지 및 관련 제품 전시회 적극 활용. 이탈리아와 홍콩에서의 수입이 35%를 차지하며, 한국산 고품질 편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면 시장 진입 및 확장 가능		
품목명 2	HS Code	3926	수입관세율(%)	15~30%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18/백만 달러)	91.3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2.4
	선정사유	스리랑카 내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기반 부족으로 대다수 수입		
	시장동향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당부하고 있으며, 현지 플라스틱 가공 산업은 매년 10~12%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중국(28%), 영국(21%), 홍콩(11%)		
	진출방안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며, 한국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는다면 침투하기 용이한 시장임		
품목명 3	HS Code	4802	수입관세율(%)	15~30%
종이와 판지	수입액('18/백만 달러)	134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0.82
	선정사유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시장동향	수입 종이를 사용하는 프린트 및 포장 회사가 스리랑카에 4,000개 정도 있으며, 최근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종이를 찾는 추세		
	경쟁동향	인도(45%), 영국(15%), 인도네시아(15%)		
	진출방안	프린팅 및 포장용 종이는 품질이 중요한데, 만약 한국기업이 가격적인 측면을 맞출 수 있으면 시장 진입 가능함		
품목명 4	HS Code	8428	수입관세율(%)	0%
엘리베이터와 취급용, 적하용 기계류	수입액('18/백만 달러)	16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4.4
	선정사유	현재 콜롬보 내의 주거형태 중 오직 1.7%만이 아파트이며, 2020년 중에는 4.5%로 증가할 전망이며, 316개의 신규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됨		
	시장동향	미쓰비시와 오티스 브랜드가 전체의 45~50%, 중국 브랜드 20~25%, 한국10%		
	경쟁동향	중국(40%), 태국(18%), 한국(10%), 인도(9%)		
	진출방안	엘리베이터는 AS가 중요하므로 적합한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에 설치된 미쓰비시와 오티스는 중국생산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한국산 우수한 엘리베이터 품질기술이 적절한 가격 선을 맞출 수 있다면 시장 진입 가능성은 충분함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IT 및 정보 서비스 분야	선정사유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Services(ITES),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와 함께 성장 추세임
	시장동향	스리랑카 IT 관련 기업들은 세계적 기준에 맞춘 서비스 제공 중
	경쟁동향	대부분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로부터 기술 서비스 수입
	진출방안	브랜드파워가 있는 기업을 찾고 있으며, 합리적 가격 선호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서남아 사이버 수출 익스프레스(연중) : 역인콰이어리 사업

- 현지 유력 바이어를 타겟하여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인콰이어리를 집중 발굴, 적절 국내기업을 사이버로 매칭하여 성약 F/U 지원
(수입 인콰이어리가 있는 바이어를 중심으로 운영)
- 사이버 방식을 활용, 스리랑카 현지 출장 부담, 바이어 현지 확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한국-스리랑카 간 비대칭적 수출정보 매칭 확대
-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성약을 지원하는 특화사업 형태로 추진하거나, 연중 상시적인 형태로 수시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연중) : 플렉시(Flexi) 지사화 사업

- 수출바우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해서 지원하면 성약 창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실시
(수출 의향이 있는 우리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 개도국 특성상 기업 개별접촉 보다는 무역관을 통한 접촉이 우리 수출기업과 바이어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활용
- 기업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마케팅(자체), 정보조사(자체), 제3자 전문서비스(법률/세무) 지원 등을 혼합하여 지원

서남아 텍스타일 공급망 구축사업

- 일시/장소 : 2020. 11월(잠정)/콜롬보 시내 전시장(잠정)
- 방법 : 현지 텍스타일 전문전시회(Intex South Asia) 참가지원
- 규모 : 국내 3~5개사
- 참고 : 전시회는 참가기업 개별참가 형태로 추진하되, 무역관은 공동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 선거	2018.11.16	-
의회 선거	2020.12월 전	2020년 3월 이후
지방 의회 선거	2020. 5월 중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태국-스리랑카 FTA	2020년에도 협상 지속 예상	-
중국-스리랑카 FTA	2020년에도 협상 지속 예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onstruction Expo 2020	2020. 3월	건축 자재
INTEX South Asia 2020	2020. 11월	섬유 및 의류부자재
Medicare -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2020	2020. 3월	의료기기

1. 스리랑카의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 중요성

- 인도양은 세계 석유의 70%가 지나가는 에너지 수송로로,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이 거쳐 가는 국제 물류 운송 중심지

 역사적 중요성

- 명나라 때 정화가 해상 실크로드 개척을 위해 대선단을 이끌고 항해를 나섰을 때에도 스리랑카에 들러 물과 식량을 조달
-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인연이 매우 깊고, 인도와도 역사적으로 밀접히 연관

 정치·경제적 중요성

-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인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거점으로 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 제공 등 적극적으로 외교 공세
- 중국은 함반토타 항구(남부)에 15억 달러, 콜롬보 항구에는 5억 달러 투자

2. 한-스리랑카 상생협력 미래비전 :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 순위 83위 → 2030년까지 10단계 상승

3.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G2G] 양국 FTA 체결 필요 [B2B, B2G] ODA를 활용한 프로젝트와 민간 기업 간 협력 연계

4. 향후 대(對)스리랑카 K패키지 실행체계(안)

 [한국] 대사관 및 기 진출 유관기관(KOICA, KOTRA, EXIM, KOPIA, EPS센터) [스리랑카] 스리랑카 각 정부 부처(재정부, 에너지부 등), 스리랑카 상공회의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성훈	관장	콜롬보무역관	+94 11 259 7494	sunghun@kotra.or.kr
2	Rajith Perera	현지	콜롬보무역관	+94 11 259 7494	rajith@kotra.lk
3	Bora Kang	현지	콜롬보무역관	+94 11 259 7494	juliana@kotrakbc.or.kr

KOTRA자료 20-070

2020 국별 진출전략 **스리랑카**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16-3(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